

Neighbor

최고의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<네이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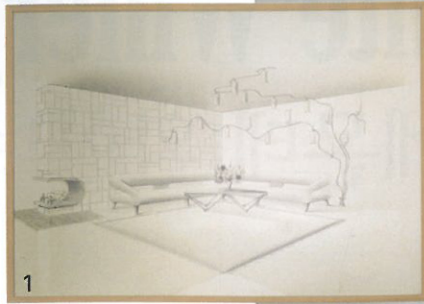
SPECIAL THEME
BRAND BOOKS

Dior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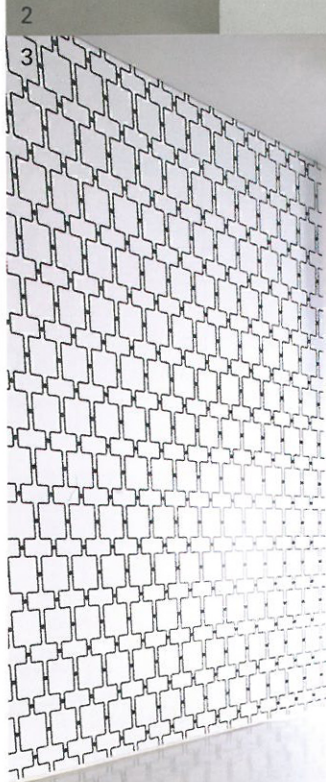
APRIL 2013





‘빈티지’라는 이름의 예술

과거로의 회귀. 패션, 디자인, 대중매체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고 있는 빈티지 열풍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. 물론 단순히 ‘오래된’ 것을 지칭하진 않는다. 빈티지의 핵심은 오래된 것을 넘어, 역사성과 예술성이 담보되어야 한다. 생활 속 가구들이 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갤러리의 초대를 받기 시작한 배경에 이러한 빈티지 열풍과 시류가 있다. 기능적이면서도 우아한, 가구와 예술의 경계에 선 디자인 가구가 현대인의 차가운 감성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. 국제 갤러리에서 3월 31일까지 열리는 <장 로이에>전 역시 따뜻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전시다.



- 1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장 로이에의 디자인 미학이 돋보이는 공간 드로잉.
- 2 식물의 넝쿨을 형상화한 장 로이에의 조명으로,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다.
- 3 장 로이에를 대표하는 북극곰 시리즈로 바이올렛 컬러가 공간에 생기를 부여한다.
- 4 로이에의 천진한 감성을 읽을 수 있는 아기 코끼리 시리즈.



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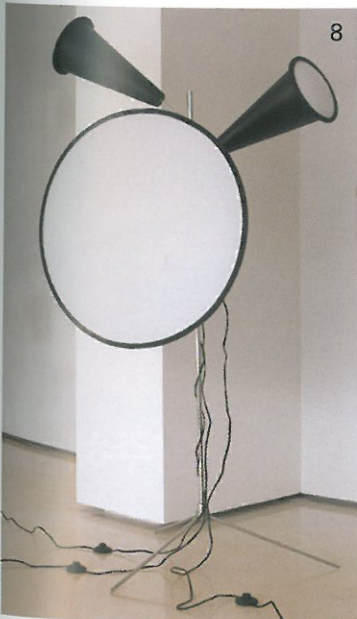
20세기 실내 건축 디자인의 선구자 장 로이에, 사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좀 낯설다.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선 첫 전시다.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, 이란의 샤 국왕 등이 그의 자유로운 창조성과 우아함에 매료된 열혈 지지자들인데, 그의 디자인을 대변하는 핵심은 바로 소재다.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'만지고 싶다'는 본능이 꿈틀대는데, 바로 소재 때문이다. 북극곰 시리즈, 아기 코끼리 시리즈, 달걀 시리즈 등 벨벳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플러시 천으로 제작된 그의 소파는 그 자체만으로 따뜻한 위안을 준다. 여기에 파스텔 톤의 강렬한 컬러로 생동감마저 느껴진다. 다양한 식물과 패턴, 원목, 그리고 금속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소재와 기법, 그리고 율동적인 조형성까지.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, 그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장 로이에의 디자인은 당시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탈피한 진보적인 것이었다. 소재의 특성상 현존하는 그의 컬렉션은 많지 않은데, 이번 전시는 그의 디자인 면모를 목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. 우아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감촉 때문에 분명 만지고 싶어질 테지만 인쇄심은 필수다.

가구가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담기 때문이다. 바꾸어 말하면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. 3월 31일까지 갤러리 101에서 열리는 <Black on White>전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의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전시다. 디자인 역사로 치자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벗어난, 1940~60년대의 가구를 지칭한다.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 발달과 그것이 불러온 대량 생산과 소비의 시대였다. 과시욕에 불타는 지배 계층은 전쟁과 산업화로 축적된 부

6
를 뽐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고, 가구는 가장 효과적인 오브제였다.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실험적 디자인에 대한 욕망. 그것은 디자인 역사에 남을 거장을 낳았다. 이 전시는 애플 디자인의 뿌리로 칭송받는 디터 램스, 론 아라드, 톰 디슨, 찰스 & 레이 임스, 윌리 랜델 등 가구의 교본이라 불리는 유럽의 가구 디자이너 12인의 가구, 그중에서도 검은색이 주조가 되는 가구를 선보인다.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20세기 중엽의 디자인 미학. 그 속엔 현대인이 갈구하던 따뜻한 '빈티지'의 정체가 담겨 있다. III



7



8

5 20세기 모던 디자인의 아이콘이 된 다양한 의자를 선보인 찰스 & 레이 임스.
6 1981년에 제작된 론 아라드의 로버 체어(Rover Chair)로, 폐차된 로버 승용차 시트와 파이프를 만들었다.
7 1950년대의 디자인계의 살아 있는 전설 디터 램스의 암체어와 수납장. 좋은 디자인은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임을 보여준다.
8 블랙 & 화이트의 모던함이 돋보이는 톰 디슨의 플로어 램프로 1995년에 제작됐다.